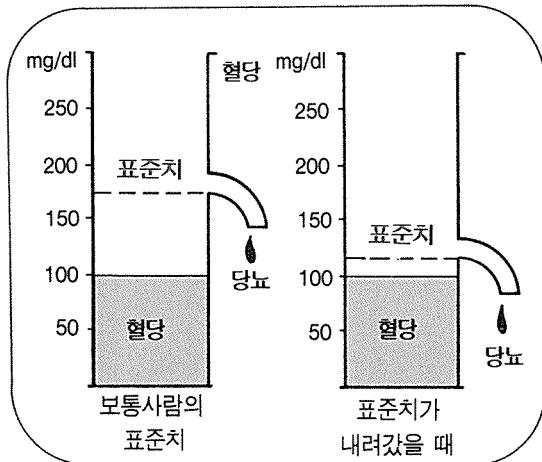


당뇨병이란 어떤 병인가? (2)

신장(腎臟) 내의 포도당 배설 표준치



● 혈당 표준치는 어째서 낮아지기도 하는 것일까

이 표준치가 어떤 때에 내려가는지가 문제지만, 현재로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.

◎ 경험적으로 보면, 1) 임신, 2) 불안·걱정·공포, 3)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를 복용했을 때에 표준치가 내려가서 소변에 포도당이 넘치는 경우가 있다.

◎ 최근 40세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. 아침식사 전의 소변을 검사했지만 단 한 사람에서도 포도당은 검출되지 않았다. 그래서 포도당 50g을 냉수 250ml에 녹여서 마시도록 해 보았다. 2시간 후

에 소변을 받아서 포도당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45명의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었다.

◎ 45명 모두가 당뇨병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. 그러나 두 시간이 지나서 혈당의 변화를 살펴보았더니, 당뇨병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5명 뿐이었다. 나머지 40명은 앞서 말한 신성(腎性) 당뇨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.

◎ 신성 당뇨가 어째서 많은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.

◎ 「뇨당 양성은 곧 당뇨병」이라는 조건 반사적인 사고가 어째서 위험한지,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☺